

# “쌀 소비 촉진, 초등생 릴레이 아침밥 먹기 운동 펼치겠다”

##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 박종탁 농협 전남본부 본부장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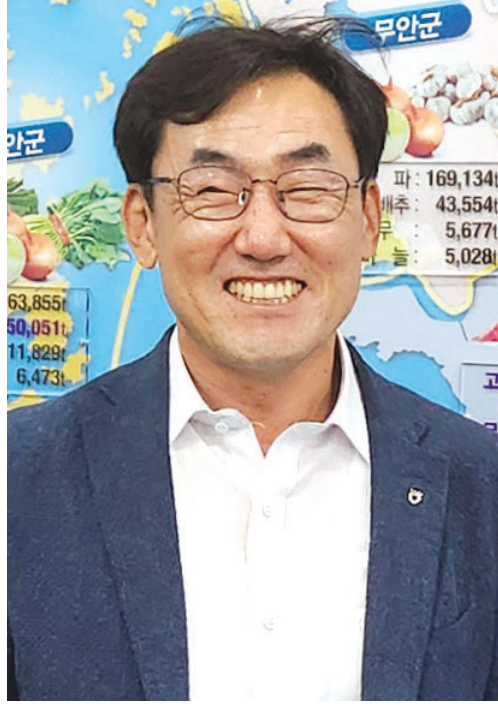
농협 전남본부 건물 1층 로비에 커다랗게 새겨진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다. 농협의 목적, 바로 농협의 존재 이유다.

현장에서 마주한 농촌은 어떤가. 농민이 사라진 농촌 대부분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힐 정도로 썰렁하다. 37만 9000여명(2011년)이던 전남 농가 인구는 27만 8000명(2023년)으로 줄었다.

젊은 농민은 그나마 찾아보기 어렵다. 심각한 고령화로 전남지역 65세 이상 농가 인구만 16만 1000명으로 전체의 57.9%나 된다. 전국 농가 소득이 5000만원(5082만 8000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농가부채 4100만원(4158만 1000원)을 빼면 소득은 1000만원도 못된다. 30년째 비슷하다. 쌀값, 소값, 대파·배추값 때문에 눈·밭을 갈아엎으며 분노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접하는 것도 낯설지 않고 일터, 삶터가 무너진다면 거리로 ‘아스팔트 농사’를 내서는 농민들도 여러 해를 넘기도록 여전하다.

반면, 이상고온, 봄장마, 냉해, 병충해, 태풍, 폭염 등 농업재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지면서 대응하기도 버겁다.

이런데도, 농업 문제는 농촌을 넘기 쉽지 않다. 수도권과 도시에 몰려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농민, 농촌은 변방이고 ‘섬’이다.

벼농사만 해도 그렇다.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고 했다. 쌀 한 톨을 만들려면 농부가 일곱 근(4.2kg)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데, 요즘 쌀값(80kg·17만 6628원·8월 25일 기준)은 밥 한 공기(100g)에 300원도 못된다.

농민이 잘 되어야 농협도 잘된다는데, ‘농사 못 짓겠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으니 농협 전남본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박종탁 농협 전남본부장도 모를 리 없다. 여수 출신으로 고향인 전남농협 수장을 처음 맡아 어깨가 더 무거울데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줄곧 14개 지역 농협을 돌아다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사정을 듣고 지원 방안을 찾아내느라 일정이 빽빽하

### 문화교실·왕진버스 등 농업인 삶의 질 높일 다양한 복지사업 청년 귀농 충분히 경쟁력 있어...장비·비용·작물 선택 지원할 것

다. 신입 직원 때와 여수지부장 근무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앙회 본부에서 근무한 터라 자칫 지역 실정에 밝지 않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현장을 찾아가다. 그만큼 어렵게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문구, 농협법 1조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농협의 역할은.

▲농협은 생산자 단체로, 처음엔 농민들이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과 생산·유통·판매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다. 그런데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문제의 중요성이 커졌다. 농협도 자연스럽게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여러 복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문화교실, 건강검진, 왕진버스, 노래교실까지 조합원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고 한다. 전남시 장흥농협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부터 거기서 먹고 센터 내 운동시설, 간단한 재활치료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도시엔 많지만 농촌엔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지역 농협이 그런 일을 하다가니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흥농협에서 보고 예금도 농협에 하고 기름도 농협에서 넣는다. 농약이나 비료도 농협에서 팔고 산다. 그러다보니 농협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복지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여력이 되는 한 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전남농협이 올해 크게 확대하거나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를 상대

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남 전 지역에서 릴레이 식으로 해볼 생각이다. 막걸리, 쌀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소비 촉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복지 사업으로는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농촌 왕진버스’를 확대하고 싶다. 농촌 주민들에게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 추진하는 전국단위 사업이다. 왕진버스가 가면 지역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올해 전남 13개 시·군·농·축협 37곳에서 운영하는데,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다. 다만 자칫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운영이 가능하데,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어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청년 농업인도 육성해야 한다. 쉽지는 않다. 청년 창업농의 토지와 시설 확보를 지원하겠다.

“쌀값 하락세가 멈추질 않는다.

▲17만 6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여러 대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매우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농협 RPC에 보관중인 재고 쌀 2만 5000 t을 가공용으로, 5000 t을 해외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고 2만 t의 쌀은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재고 풀량을 줄이기로 했다.

전남본부도 전남도교육청, 서울 중랑구, 한국농어촌공사, 전동주생산자협회 등과 협약을 맺어 관측 행사도 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소비 운동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5만 t을 격리키로 하는 등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 수확기에 적정 쌀 가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매년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인데,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년 전인 1993년 대비 절반수준인 56.4kg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 감소가 제일 큰 요인이다. 두번째로는 생산량이 줄어 필요량이 있다. 정부가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걸로 미흡하다. 조사를 전환, 타작물 재배 등을 유도해야 한다. 영농형태 다양화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농에서 보존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 소득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예전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남을 방문했을 때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쌀 소비 확대도 필요하다. 그런데 식생활은 금방 바뀌지 않지 않나. 소비가 대폭 늘어나지도 않으니 쌀 가공식품 소비를 늘려야 한다.

막걸리, 쌀 과자 등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막걸리 한 병에 쌀 한 공기 반이 들어간다. K-푸드 열풍도 있으니 해외 수출도 많이 해야 한다. 농협 혼자만 할 수 없다. 정부와 협력해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겠다.

“영세농, 소농, 쌀 전업농도 많고 고령화도 심각하데, 벼농사 대신 다른 작물로 바꾸려면 쉽게 바꾸겠나.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S효성 계열사 효성첨단소재 사명 HS효성첨단소재로 변경

### 성낙양 부사장 대표이사 선임 예정

HS효성의 주력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해 사명을 HS효성첨단소재로 변경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7월 효성그룹에서 분리돼 출범한 신설 지주회사인 HS효성의 대표 계열사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타이코드와 자동차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을 비롯해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미래 먹거

리까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이다. HS효성첨단소재 사명 변경은 기존의 기업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HS효성그룹의 CI(Corporate Identity)를 적용, 그룹 브랜드와의 일체화를 위해 추진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HS효성 그룹 주력 계열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소재 기업이라는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는 우주

항공과 친환경 소재 등 신규 소재 사업 분야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는 또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미래전략 부문을 총괄하는 성낙양(60)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에 선임할 예정이다. 성 부사장은 아우크로리아 대표이사, 두산동아 대표이사, ㈜효성 경영혁신실장 등을 지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조용수, 성낙양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추석 청과 세트 ‘셀렉트팜’ 8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지하1층 푸드마켓에서 신세계 지정 산지 청과인 ‘셀렉트팜’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셀렉트팜 선물세트는 청과 바이어가 전국 각지의 과일을 엄선해 맛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새터민 차소연 류경식당 대표 초청 강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이 닥쳐도 스스로의 의지만 굳건하다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터민 출신 방송인 차소연 류경식당 대표가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된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 ‘제1166회 금요조찬포럼’ 강사로 초청받았다. 차 대표는 이날 ‘사선(死線)에서 사선으로’라는 주제로,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사진>

이날 차 대표는 북한 청진경공업대학교 최원준 교수가 됐지만, 친구의 배신에 의한 납치 탈북, 중국에서의 차별, 공간의 추격 등 본인 이야기를 빚대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차 대표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만큼, 언제든 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시련’과 ‘골레’에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지키는 나의 힘을 ‘의지’라고 생각한다. 의지가 없는 사람의 삶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의지가 굳건하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앞서 광주경총은 광주불교방송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챔스필드 3000명 초청 ‘홈런데이’ 행사

광주은행은 8일 “지난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고객 및 임직원 3000여명을 초청해 ‘고객과 함께하는 홈런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IA타이거즈 후원사인 광주은행이 창립56년을 맞아 정규리그 지역 연고 팀의 우승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광주은행은 경기장 입구에 이벤트존을 마련해 모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톨렛돌림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경품으로 광주FC 입장권,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KIA타이거즈 응원 마대 및 도서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더불어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박철홍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회장이 이날 경기 시타를 했고, 경기 막바지에는 관중들을 대상으로 전광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총 30명에게 KIA타이거즈 티셔츠와 비치타월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또 광주은행은 지역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

해 세이브더칠드런에 3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질병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스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에 연고를 둔 스포츠단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야구·축구·양궁 등 각 스포츠 종목과 금융상품을 접목해 출시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안도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국회의원을 초청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유동주 광주전남식자재협동조합 이사장, 조경문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류승원 광주전남크리드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290개 정책과제를 안 의원에게 전달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가업승계 관련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지역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인의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곳곳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전남경진원 신중년 구직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50세-64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강화교육이 시작된다.

8일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전남경진원)에 따르면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와 목포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는 오는 23일부터 5일 간 ‘신중년 구직자 시설관리직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맞춤형 직무교육으로, 한국폴리텍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현대안전 등 전문기관 강사들이 나서 40시간에 걸쳐 이론 및 현장실습 등을 진행한다.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예산지원·교육생 모집 및 취업알선, 중장년내일센터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산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올해 처음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현장경험이 부족한 신중년(50세-64세) 구

직자들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를 기자 dok2000@

■ 로또복권 (제 113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1	33	35	38	42	44	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14,468,157	12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1,719,151	75
3	5개 숫자일치					1,592,890	2,90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4,451
5	3개 숫자일치					5,000	2,452,383